

## 낭만적인 정치생태학 산책

이상헌

행정학 박사, 녹색미래 사무처장

### 1. 정치생태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자연의 변화(수자원의 고갈과 오염, 열대우림의 파괴, 토양 침식, 유해폐기물의 발생, 야생동물의 멸종 등)를 설명하는 일은 그 문제의 발생이나 악화와 관련된 정치·경제과정에 대한 설명과 분리되지 않는다. 즉, 자연의 변화는 정치·경제·문화적 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파악하려면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Blaikie, 1995: 4-5; Dickens, 1992: 1-3, Wilson & Bryant, 1997).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이다.

정치생태학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지니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생태학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연구자의 학문배경, 연구대상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생태학 내부에서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정치생태학은 조금씩 공통분모를 늘어갔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환경오염실태가 자본주의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자, 정치생태학은 정치경제학적인 자본주의 비판을 넘어서서 근대적 산업화 방식 자체를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많은 수렴에도 불구하고 정치생태학은 크게 두 가지 구별되는 종류로 나뉜다.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는 제3세계 정치생태학과 유럽에서 논의되는 제1세계 정치생태학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생태학의 정의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블레이크와 브룩필드(Blaikie & Brookfield)의 정의는 사실 주로 제3세계 정치생태학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3세계) 정치생태학이란 “생태적 관심을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경제학과 결합시킨 담론”인 것이다(Blaikie & Brookfield, 1987: 17). 블레이크와 브룩필드는 제3세계의 토지 고갈 및 피폐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부실한 관리, 인구과잉 혹은 주민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나 정치경제적인 제약(constraint)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Blaikie & Brookfield, 1987). 즉, 정치생태학은 생태적 저하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보다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Watts & McCarthy, 1997: 12).

반면 주로 유럽에서 논의되는 제1세계 정치생태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서 이해된다. 즉, 정치생태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 모두 산업사회로서 경제성장중심주의 혹은 생산주의를 기초로 하여 경제학과 생태학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이며,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는 경제적 합리성(최소비용원칙과 최대수익원칙의 결합)에 근거한 성장지향적 특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Gorz, 1980; Lipietz, 1992).

## 2. 제3세계 정치생태학

브라이언트와 베일리(Bryant & Bailey)는 제3세계의 자원이용방식이나 생태적 조건이 지구적 경제시스템이나 정치권력(국지적 권력집단을 포함하

여)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3세계 정치생태학’이라고 이름 붙였다(Bryant & Bailey, 1997; Bunker, 1984; Watts, 1985, 1990; Gradus, 1987; Blaikie & Brookfield, 1987). 제3세계 정치생태학에는 환경갈등에 있어서 빈농이나 유랑 경작인과 같은 풀뿌리 행위자들의 저항방식-회피행동을 통해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 농민들의 일상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 가구에서의 권력관계가 토지, 자연자원, 노동, 그리고 자본의 통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후기구조주의에 의존하여 담론이론으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정치·생태적인 결과들을 매개하는가를 살피는 연구들도 나왔다(Bryant & Bailey, 1997: 14).<sup>1)</sup> 이 글에서는 제3세계 정치생태학을 연구 대상과 담론의 특징에 의해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과 ‘의미와 갈등의 정치생태학’으로 구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

제3세계 정치생태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주로 제3세계의 자원개발과 이로 인한 토양침식과 열대우림파괴, 그리고 단일경작농업으로 인한 종다양성의 감소문제가 농민이나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억압문제 및 빈곤문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Shiva, 1989; Stonich, 1993).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일수록, 소수인종일수록, 그리고 가난할수록 환경 질의 악화와 자원고갈로 인한 피해에 더 쉽게, 그리고 훨씬 오랫동안 노출된다. 제3세계 주변인들의 빈곤과 자원고갈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많은 연구자들은 서구의 과학기술이 가진 환원주의와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지배전략을 들고 있다. 즉, 국지적 지역의 인구증가나 자원사용방식의 문제가 생태계

1) Bryant & Bailey(1997), Bunker(1984), Stonich(1993), Watts(1985; 1987, 1990) 등을 참조할 것.

파괴와 빈곤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오로지 이윤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산업사회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종자회사, 농약회사, 제약회사)의 경제전략이 제3세계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 그리고 주변인들의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Walker, 1998: 137).

이 논문에서는 주변인들의 빈곤과 자원고갈,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을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생계형 농민으로 있던 제3세계 농민들은 식민화되거나 환금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자신이 경작할 토지를 잃고 근대적 임금노동자 혹은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되었다. 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빈곤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삶과 자원, 그리고 이들간의 생태적 균형은 자본의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에 편입되면서 단기적인 편익을 위해 파괴된다. 이러한 과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은 식민권력이나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각 지역의 행정권력,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다. 서구의 근대적 발전이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은 제3세계의 인간과 자연 간의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였다. 이러한 파괴를 목격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발전은 비록 그 앞에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수식어가 첨부되더라도 그것이 제3세계에서도 유의미하려면 발전이라는 개념 혹은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철저히 재고찰해야 한다는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sup>2)</sup>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은 주로 근대적 식민지의 경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자원기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의 생태적 문제, 즉 인간과 자연(특히 토지나 삼림의 자원)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화 모델의 적용과 생태

2) 서구의 발전 개념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Lele(1991), Shiva(1989; 1991), Redclift(1984; 1987), Redclift & Benton(1994), Turner(1993), Zimmerman(1993) 등을 참조할 것.

계 변화, 그리고 빈곤의 발생과정,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많다. 특히 최근의 제3세계 농민들에 대한 연구들은 농민들의 저항을 비롯한 생계운동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농민들이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국지적 환경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생계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대체로 정치생태학 발전 초기의 관심이 반영된 연구들이 많다. 정치생태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치생태학은 기본적으로 국지적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끼친 구조적 변수들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중범위수준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자원이 착취되는 데 영향을 끼친 정치·경제적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였는가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수문학(hydrology), 생물학, 사회학, 지역계획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과들간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견된다.<sup>3)</sup>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 중에서 많은 경우는 제3세계의 가난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중적 질곡과 생태계 변화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생태여성주의론’(ecofeminism)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sup>4)</sup> 생태여성주의에는 다양한 분과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생태여성주의론은 자연이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여성이 남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사이에 일정한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전제로 하며, 남성중심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이론, 실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고,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특징을 보인다(문순홍, 1999: 372-373).<sup>5)</sup>

3)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제간 연구의 사례로는 Black(1990), Bell & Roberts (1991) 등을 참조할 것.

4) 생태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로는 Carney & Watts(1990), Jackson(1993), Rocheleau(1995), Schroeder(1993), Shiva(1989; 1991) 등을 참고할 것.

5) 문순홍에 따르면 생태여성주의론이 가지는 공통적인 합의점은 다섯 가지이다.

## 2) 의미와 갈등의 정치생태학

‘자원과 빈곤의 정치생태학’이 주로 제3세계의 자원고갈과 빈곤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의미와 갈등의 정치생태학’은 제3세계 생태계 보존이나 자원고갈과 관련된 담론, 집단 혹은 개인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자원이 지닌 의미를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세계의 경우 자원은 단순한 사회적 이용대상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집단에 정체성(혹은 소속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도 개인소유보다는 집단소유의 공유자원이 많다. 따라서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집단의 역사적 권리 주장이 다른 집단의 권리주장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갈등의 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자연자원이 가진 정치·문화적 의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왓츠(Watts, M.)의 오고니(Ogoni) 부족과 석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Watts, 1998). 나이지리아 정유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오고니랜드(Ogoniland—오고니 부족의 거주지)의 석유가 다국적 석유회사인 셸(Shell)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약 25년간 환경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채굴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오고니 부족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대기

---

첫째, 자연과 여성의 이미지는 동일하다. 둘째, 자연이 인간에 의해 취급받는 방식과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취급되는 방식이 유사하다. 즉, 모두 자신의 가치를 박탈당하고 유용성이란 측면에서만 취급된다고 보거나(Vandana Shiva), 식민화 방식에 의해 자유재, 원료, 상품 등으로 취급받는다(Maria Mies)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변혁의 출발점으로 가정 또는 재생산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즉, 여성영역으로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여성노동력으로서 재생산 노동이란 특성을 가정에서 경제영역이나 정치영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논의한다. 넷째, 여성과괴와 자연과괴의 원인이 가부장제적 구조나 그 지배적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이원론, 가치 차등주의, 도구주의 등이 극복된 대안적 세계를 상정하는데, 이 극복을 위한 이념과 원리로 여성성(femininity)을 강조한다(문순홍, 1999: 374-376). 생태여성주의의 등장과 성격 그리고 이론적 논점 등에 대해서는 Merchant(1980; 1996), Mies & Shiva(1993), Diamond & Orenstein(1990), Warren(1997), Mellor(1997), Cuomo(1998), Plumwood(1993) 등을 참조할 것.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저항하여 오고니 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려 했던 Movement for the Survival of Ogoni People (MOSOP)의 지도자 켄 사로-비바(Ken Saro-Wiwa)와 여덟 명의 간부들은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필요로 했던 중앙정부에 의해 1995년 11월 10일 사형당하였다. 그런데 오고니 부족에서 석유는 단순히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자연자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자원이었으며, 새롭게 해석되는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저항과 투쟁은 단순한 환경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위기에 저항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기도 했다는 것이다(Watts, 1998: 243-268).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과 결부된 하나의 용어도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보존’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서구적 의미에서 보존이란 과학기술에 의한 해결이라는 신념과 1차 자연, 즉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구적 의미의 환경보존개념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이곳에서 추방하여 원초적인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연보존에 대한 인식은 이와 다르다. 이들에게 주변의 동물과 식물은 그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자연의 선물이며, 굳이 대상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착취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스러운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진정한 보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비 과학적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자연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주변의 자연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삶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의미와 갈등의 정치생태학’에 속하는 연구들은 이처럼 보존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과 유리된 환경보존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기도 하였다.<sup>6)</sup>

6) 대표적인 것이 Peluso(1993)의 연구인데, 펠루소는 케냐에서 정부가 국제적 환경보존단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헬기로 총을 쏘아서 주민들과 전투를 하는 상황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케냐정부와 국제적 환경보존단체들은 주민

이러한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문화는 경제주의적 맑스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의 물적 토대를 단순히 반영하는 상부구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생산관계를 형성하는, 즉 대중의 행동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Williams, 1977; Donham, 1990). 따라서 특정한 장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소나 자원에 대한 의미가 형성되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는 집단들의 집합적 정체성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3. 제1세계 정치생태학

제1세계 정치생태학에 포함되는 연구주제들과 담론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 기준은 서구의 근대화 패러다임이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특히 현재의 과학기술과 행정·정치제도에 의한 해결능력)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생태위기 극복의 주도적 주체가 (과학기술, 행정)전문가인가 아니면 대중들인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제1세계 정치생태학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문적 지식과 과학기술,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근대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기존의 전문적 지식과 근대적 과학기술이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해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현재의 서구 근대화 패러다임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더 정교화하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후자의 입장은 서구의 근대화 패러다임 자체에 내재해 있는 비판의 계기를 더 확대하여 근대화 자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다.

---

들에게 간단히 밀렵꾼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Peluso, 1993, Walker, 1998: 143에서 재인용).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도 제1세계 정치생태학은 역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우선 생태위기는 지구라는 희소한 생태적 공유자원의 고갈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능력을 갖춘 엘리트가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반해서 생태위기는 근대적 패러다임 속에 있는 전문적 지식의 지배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을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아래에서는 두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된 제1세계 정치생태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근대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제1세계 정치생태학 담론

### (1) 생태적 근대화론

‘생태적 근대화론’이란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反)근대주의나 반(反)생산성 이론 대신, 근대성 내부에서 경제적 실천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조정하려는 것이다(Mol, 1996: 306). 그런데 생태적 근대화라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 의미에 다소의 편차가 있고, 이해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생태적 근대화의 의미를 매우 폭 넓게 이해하고 있는 마틴 헤이어(Hajer, 1996)에 의하면 생태적 근대화는 크게 제도적 학습, 기술관료주의적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정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제도적 학습으로서 생태적 근대화론을 이해하는 입장은 제도적 학습을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고 그 내용만 개편하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운동이나 환경갈등은 제도적 학습의 과정일 뿐이며, 생태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Hajer, 1996: 251-252). “과학은 자연에 대한 도구적 통제를 원활히 하고 사회적 교란을 최소화하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환경문제를 계량화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적·경제적·과학적 개념들의 집합이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의 최대 수용량과 최적의 이용속도를 계산해야 하고,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행위패턴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반생태적인 문화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태적 근대화는 매우 온건한 사회적 프로젝트로서 이해되며 기존의 정치적 제도가 생태적 고려를 내부화하거나 초국가적 관리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Hajer, 1996: 252-253).

둘째, 기술관료적 프로젝트로 생태적 근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적 학습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예닉(Janick)은 생태적 근대화를 “환경적으로 유익한 결과(오염물질배출의 감소, 자원효율성의 증대 등)를 수반하는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예닉은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생태적 근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한편, 후버(Huber)는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시스템의 생태적 재편이라고 보았다. 후버가 보기에 현대사회의 주된 문제는 산업시스템(혹은 기술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하버마스)와 ‘자연의 식민화’이다(Mol, 1996: 313). 이 두 가지 식민화 문제는 산업체제의 생태적 재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산업체제의 생태적 재편이란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동시에 전문적 노하우(know-how)에 기반하여 생산순환과 소비순환을 자연순환과정에 통합시키는 재적응과정이다. 이 과정은 권리의식, 자본윤리, 그리고 개인적 책임성의 윤리를 통해 조정된다(후버, 1995: 239). 이러한 생태적 재편에 근거한 과정을 후버는 생태적 근대화라고 이해하고 있다.

셋째, 문화정치로서 생태적 근대화를 이해하는 입장은 자연보호 그 자

7)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환경개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구조변화과정에 내재된 정치경제적 모순은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Christoff, 1996: 480-481).

체보다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회와 자연이 창출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 입장에서 보면 일관된 생태위기라는 것은 없으며 변화하는 물리적·사회적 실재의 다양한 측면을 문제제시하는 일련의(혹은 복수의) 이야기거리(story-line)만이 존재한다(Hajer, 1996: 256).<sup>8)</sup> 생태적 근대화는 사회적 행위를 위한 인지지도(認知地圖)를 제공하고 행위에 동기부여를 하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생태적 근대화 속에서 현실의 어떤 측면들은 부각되고 어떤 측면들은 배제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환경정치의 담론적 속성에 관심을 집중한다. 여기서 환경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표명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주장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주장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과학 패러다임이 자연의 성격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 문화적 가치, 정치경제적 구조에 의해 주어진 사회·역사적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과학적 구성물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Hajer, 1996: 257-258). 이처럼 문화정치로서 생태적 근대화를 이해하는 입장은 생태위기가 복잡한 사회과정의 결과인 담론적 실재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논쟁’, ‘사회적 선택에 대한 협상’ 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한다(Hajer, 1996: 258-259). 만일 생태적 근대화를 이렇게 문화정치로 이해하게 되면 생태위기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된다(Hajer, 1996: 259).<sup>9)</sup>

8) 이야기거리라는 용어는 하레(Harre)나 빌리히(Billig)의 담론이론에서 제창된 용어로서 담론주체들과 담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서사이다. 즉, 다양한 범주들의 담론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변환시키는 서사이다. 이야기거리는 서로 다른 영역들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결합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공통의 이해를 갖게 해주는 상징적 참조점이다(Hajer, 1995: 62). 자세한 것은 이상현(2001: 49-51)을 참조할 것.

9) 헤이어는 제1세계 환경정책의 6가지 분야에서 생태적 근대화를 향한 이행의 조짐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환경정책결정 기술 분야에서 예방적 원칙이 대중적(對症的) 원칙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정책결정과정 영역에서 과학이 사전적(事前的)이고 비판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미시경제학적 차원에서 환경보존을 비용으로 생각해오다가 이제는 오염방지비용

헤이어는 생태적 근대화 담론이 각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향후 네 가지 형태로 발전해갈 것으로 평가하였다(Hajer, 1996: 260-266).<sup>10)</sup> 첫째 형태는 ‘생태학의 합리화’이다. 이것은 기존의 관료적 구조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생태적 문제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이 현재 가장 일반적인 발전경로이지만 권위주의적 해결방식이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태는 ‘생태학의 기술화’이다. 마틴 예닉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생태학의 기술화는 환경오염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생태학이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결국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이슈를 시장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형태는 ‘사회의 생태화’이다. 이것은 생태적 근대화의 발전이라기보다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장소의 정치’, 혹은 ‘새로운 지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국가의 환경에 대한 담론을 국가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입장이며, 국민국가의 경계를 희석시키는 지구화 경향에 맞서서 생태적 조건에 기반한 새로운 국민적(혹은 지역적)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이 발전경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나치즘의 예와 같이 매우 반동적인 보수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형태는 ‘생태학의 사회화’이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맥락 하에서 사회정의, 민주주의, 책임성, 인간과 자연 간의 바람직한 관계,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 기술이 인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새롭게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sup>11)</sup> 이 네 가지 형태는 단계론이

---

을 인정하게 된 사실이다. 네 번째는 거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자연을 자유재로 생각하여 매몰비용으로 여기기보다는 공공재나 공유자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입법적 담론영역에서 기업들이 점차 오염을 예방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오염원인을 증명하기보다는, 혐의가 있는 개별오염자가 입증부담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 환경정책에 대한 참여의 영역인데, 환경운동조직이나 지역주민들도 환경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Hajer, 1995: 26-29).

10) 물론 그의 논의는 주로 제1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 헤이어도 크리스토프처럼 생태적 근대화를 기술관료적 생태적 근대화(techno-

아니며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생태적 근대화는 기존의 근대화 패러다임을 다소 변용시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 (2) 성찰적 근대화론

성찰적 근대화 담론은 근대적 과학기술에 대한 전면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태지향주의적 자연관’이라는 전통에 서 있다. 생태지향주의적 자연관은 낭만주의(특히 18세기와 19세기 서구에서 발생한 낭만주의운동)의 두 가지 특징,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와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생태지향주의적 자연관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 관계보다는 조화와 겸양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근대적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의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찰적 근대화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sup>12)</sup> 성찰적 근대화론의 대표주자 울리히 벡

---

corporatist ecological modernization)와 성찰적인 생태적 근대화(reflexive ecological modernization)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전자는 자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엘리트주의적 결정작용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자는 근대화 과정을 생태적으로 환치(displacement)시키면서 사회정의와 경제적 재분배,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Hajer, 1996: 260-266).

- 12) 성찰적 근대화 담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하는 탈전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찰적 근대화 담론,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주장하는 위험사회론에 근거한 성찰적 근대화 담론, 스콧 래쉬(Scott Lash)가 주장하는 미학적 성찰로서의 성찰적 근대화론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근대적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고 파악하여 벡의 논의만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기든스도 근대의 과학기술에 의한 생태적 결과를 경고하기는 하였다. 기든스가 보기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예측하고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발생하는 세계에 산다. 이처럼 결과를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기든스는 ‘제조된 불확실성’이라고 하였다. 제조된 불확실성은 근대적인 자연통제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Giddens, 1990: 4). 제조된 불확실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구화에 의해 파생된 생태적 결과이다. 단순근대화는 자연을 기술관료적 통제 아래 두고, 장기적인 생태적 결과

(Ulrich Beck)은 기든스가 제시하는 근대사회의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테제<sup>13)</sup>를 수용하지만, 그 존재론적 불안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위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본다. 벡은 단순근대화에 의해 초래된 생태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이름 붙였다(벡, 1997). 위험사회는 산업사회의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으로 인해 ‘위험’(risk)과 ‘위협’(danger)이 등장하고 사회적인 규범체계가 자신이 약속한 안전보장을 지킬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위험사회의 정치적 특징은 갈등이 재화의 분배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혹은 재앙의 분배를 둘러싸고 일어난다는 데 있다.<sup>14)</sup>

이 위험사회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볼 때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적으로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사회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계산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울리히 벡은 이것을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라고 부른다(Beck, 1995: 63-65). 예컨대

보다는 단기적인 이윤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문명에 근거를 둔 단순근대화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도로 위험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핵발전이라든가 신물질의 개발, 그리고 유전공학이나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은 과거의 자연재앙이라기보다는 인공적 재난에 가깝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 어디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지 모르게 되었다.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는 바로 이러한 단순한 근대화의 제조된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이성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콧 래쉬의 미학적 성찰은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이며, 성찰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급진적인 성찰을 하자는 주장을 한다.

13) 전통적 사회는 공동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결속되는 반면, 근대사회는 집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특징이 있다(Scott Lash, 1994: 114).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근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원자화되고, 인간관계는 추상적이고 탈인격화된다. 기든스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Giddens, 1994). 기든스는 이러한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가 선택한 전문가 시스템은 사회학이다.

14) 울리히 벡(1998: 21)에 실린 문순홍의 주석을 참조함.

문명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인 화학물질은 이제 극지방마저도 위협에 빠뜨리게 만들었지만 적절한 최대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부주의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유독물질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책임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면 위험사회의 존재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벡은 존재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한다.<sup>15)</sup> 벡의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의도하는 성찰성은 전문가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벡이 보기에 위험사회의 성찰성이란 지식을 매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 혹은 ‘인지하지 못함’을 매개로 하는 성찰성이다(Beck, 1995: 90). 즉, 생태적 재난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의구심 증가가 성찰적 근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벡은 근대사회의 ‘정치’(politik)가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정치’란 제도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제도)정치를 의미하고 ‘정치적인 것’이란 제도와 국가에서 벗어난 (생활)정치를 의미한다. 개인적 수준의 성찰성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치적인 것의 전면화’ 현상을 그는 ‘개성화’라고 하는데,<sup>16)</sup> 바로 이 개성화가 성찰적 근대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성화를 통해 산업사회적인 자기이해를 해체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자기이해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벡, 1998: 179). 따라서 벡의 성찰적 근대화는 생태위기라는 존재론적 불안에 대한 정치적

15) 벡의 성찰적 근대화론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재귀적(再歸的) 근대화론이라고 해야 옳다. 행위자의 행위 결과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든스의 래쉬의 용어인 성찰적(reflexive) 근대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영어식 표현인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6) 래쉬는 개성화를 individualiza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올 때 발생한 개인화(individuation)와 구분시키고 있다(Lash, 1994: 113).

대안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의 새로운 자기이해와 새로운 관계의 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근대화는 개성화 전략에 의해 전문가중심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의심함으로써 근대화에 내재한 자기비판의 계기를 확대시켜 생태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반(反)이성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칸트가 제시했듯이 이성에 대한 이성적 비판을 급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성찰적 근대화 담론은 서구 내에서 수행된 서구 근대 패러다임에 대한 자체적인 생태비판이며, 과학기술에 의한 생태문제의 해결이라는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 2) 생태위기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제1세계 정치생태학

### (1) 생태권위주의의 정치생태학

생태권위주의란 생태적 회소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악’으로 인식하고,<sup>17)</sup>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책으로서 전문가적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입장이다(Ophuls, 1977; Dryzek, 1997; Barry, 1999). 생태권위주의를 주장하는 오폴스는 현재 ‘공유지의 비극’ 상황에 처한 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효용극대화 경향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지만 한 개인의 노력(이타적인 개인의 노력)이나 양심, 혹은 세계관의 변화나 후손에 대한 진정한 관심만으로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오직 권력을 가진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Ophuls, 1977: 154). 물론 이것이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한 옹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폴스가 말했듯이 국가에서 질서는 목적이 아니라 문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17) 회소성을 정치적 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사회를 위해 회소한 자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억압과 통제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권은 인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 의한 통치를 통해 인민을 향도하고, 주권행사의 대상(인민)에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제공하여 설득을 하여야 한다. 하딘이 말한 것처럼 문제는 ‘철의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입법화’하는 것, 즉 관료적 전제주의가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한 상호강제’가 필요한 것이다(Hardin, 1968: 1247).

그러나 이들이 관료적 전제주의를 반대하고 ‘상호합의에 의한 상호강제’를 옹호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간에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생태적 희소성이 증가하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유보시켜야 하고 위기를 대처해나갈 수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 차이를 중시해야 한다. 예컨대 위험한 항해의 경우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보다는 능력과 권위를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여 배를 조종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즉, 생태적 희소성의 증가라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보다는 능력있는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Ophuls, 1977: 159).

또한 생태적 희소성 문제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돌파하려는 노력도 결국에는 능력있는 엘리트에 의한 지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컨대 원자력기술을 통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은 사회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과정과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자력폐기물의 독성이 감소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거의 영구한 기간 동안의 감시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정부나 관료조직도 영구하게 감시할 수는 없으며 능력이 없는 일반대중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다만 소수의 능력있는 과학기술 엘리트들이 이를 계속 감시를 하는 것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생태적 희소성이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하고 일정하게 사회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다소 권위주의적인 것처럼 보여도 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계층—오폴스—

이들을 ‘생태적 향리’(ecological mandarins)라고 부른다—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Ophuls, 1977: 163-164).

## (2)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생태학

생태민주주의는 생태권위주의의 내부적인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에서 논의를 출발시킨다(Paehlke, 1988; Paehlke & Torgerson, 1990; Dryzek, 1996). 생태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생태적 회소성 위기를 관리한다는 목표(goal)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목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고, 그 결과 목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차단된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요구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Mills, 1996: 98-99).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문제해결의 절차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제해결이라는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생태문제해결에 있어서 생태권위주의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생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Sagoff, 1988).<sup>18)</sup>

생태민주주의의 입장은 녹색정치가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일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집합체인 자연환경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절차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생태위기를 더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확실성과 위험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과 목적-수단의 관계를 공개적이고 성

18) 물론 민주주의와 생태문제해결을 위한 정치 혹은 녹색정치(green politics)가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상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Saward, 1996).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풍요(복지)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만 해당되는 주장이다(Barry, 1999: 197-198).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은 분명히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찰적인 방식으로 고찰하는 것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Hayward, 1995: 186). 물론 이것은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인 방식을 택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생태민주주의에서는 전문가의 역할도 다르게 규정된다. 전문가는 생태권위주의에서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한다. 즉, 전문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인 사회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관심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생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발상이다(Barry, 1999: 200).<sup>19)</sup>

생태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생태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생태적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생태중심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ills, 1996: 100; 돕슨, 1993: 81-91; Eckersley, 1992: 60-74; Dryzek, 1996: 109). 생태중심주의란 생태적 가치가 자연 속에 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을 정치의 장에 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생태중심주의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여 극단적으로 인간을 지구의 암적 존재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근본생태론의 입장에서부터 소극적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를 인정하는 입장까지 넓게 퍼져 있다(돕슨, 1993; Fox, 1984; 1986).<sup>20)</sup>

민주주의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예컨대 참정권의 확대, 대중적 통제범

19) 이러한 관점은 앙드레 고르(Andre Gorz)가 생태위기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나 올리히 벡이 과학적 실천에 민주주의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일하다(Barry, 1999: 202).

20) 앤드류 돕슨은 적극적 인간중심주의와 소극적 인간중심주의를 나누고 있는데, 적극적 인간중심주의는 비인간세계를 순전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과 관련되며 소극적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라는 조건의 불가피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비인간세계를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위의 확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의 확대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 등등이 대표적이다(Dryzek, 1996: 109). 그러나 성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혹은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제도나 정책의 ‘목표’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정치생태학적 담론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치생태학에 포함되는 연구 주제와 담론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생태학의 여러 담론들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정치생태학 담론들은 현재의 생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서구의 근대적 산업화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비판의 정도와 비판의 이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 측면에서는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주의와 팽창주의에 기초한 서구의 근대성 혹은 근대적 발전이 결국 전지구적인 생태계와 인간사회를 파괴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과정에서 자체의 내재적인 생태가치를 가진 자연은 자원으로 변화하였으며,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정치화’(politicization)되는 것이다. 자연의 정치화는 단순히 자원으로써 자연의 사용을 둘러싼 갈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부과된 의미와 문화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포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생태학 담론들은 생태권위주의의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생태문제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접근 혹은 인민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세계 정치생태학, 특히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과학기술의 승리가 초래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제조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엘리트들에 의한 생태문제해결이라는

것은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자연과 미래세대와 같이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행위자들과의 민주주의적 관계도 고려하게 되면서 정치생태학은 생태민주주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세계 정치생태학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생태적 지혜에 대한 옹호, 여성적 원리의 지지와 같은 인민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다양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들, 특히 사례연구들은 특정한 지역의 자연/사회, 자연/문화의 물질대사(metabolism) 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연/사회,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있는 정치생태학의 이론적 특성상 필연적인 것이다. 라투어(Latour)가 말하듯이 정치생태학의 대상은 무한한 혼합체와 혼성체의 네트워크이고 이들의 변화는 시간적인 경과를 통해서만 확인되기 때문이다(Latour, 1998). 제3세계 정치생태학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매우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정치생태학은 서구의 근대화 패러다임이 초래한 자연의 정치화 과정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서술하며, 민주주의적 원리를 자연의 정치화에 따른 문제해결방식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현 snaghunl@yahoo.com

## 참고문헌

- 문순홍. 1999,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담론의 생태학』, 솔출판사.
- 울리히 벡. 1998,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문순홍 옮김), 거름.
- 울리히 벡.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홍성태 옮김), 새물결.
- 이상현. 2001,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rry, J. 1999, *Rethinking Green Politics: Nature, Virtue and Progress*, London: Sage Publications.
- Beck, U. 1996, "World Risk Society as Cosmopolitan Society?: Ecological Questions in a Framework of Manufactured Uncertainties,"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3(4), pp.1-32.
- Beck, U., Giddens, A. &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 & Weisz, A.(trans.)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Press.
- Bell, R. & Roberts, N. 1991, "The Political Ecology of Dambo Soil and Water Resources in Zimbabwe," *Trans. Inst. Br. Geogr.* N.S. 16, pp.301-318.
- Black, R., 1990, "Regional Political Ecology in Theory and Practice: A Case Study from Northern Portugal," *Trans. Inst. Br. Geogr.* N.S. 15, pp.35-47.
- Blaikie, P. 1995, "Understanding Environmental Issues," in Stephen Morse & Michael Stocking(eds.), *People and Environment*, London: UCL Press.
- Blaikie, P. & Brookfield, H. 1987,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London and N.Y.: Methuen.
- Bryant, R. & Bailey, S. 1997, *Third World Political Ec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nker, S. G. 1984, "Modes of Extraction, Unequal Exchange and the Progressive Underdevelopment of the Extreme Periphery: The Brazilian Amazon, 160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 pp.1017-1064.
- Carney, J. & Watts, M. J. 1990, "Manufacturing Dissent: Work, Gender, and the Politics of Meaning in a Peasant Society," *Africa*, 60(2), pp.207-241.
- Christoff, P.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Ecological Modernities," *Ecological Politics*, Vol. 5, No. 3, pp.476-550.
- Cuomo, C. 1998, *Feminism and Ecological Communities: An Ethic of Flourishing*, New York: Routledge.
- Diamond, I. & Orenstein, G. F.(eds.) 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Dickens, P. 1992, *Society and Nature: Towards a Green Social Theory*,

Temple Univ. Press.

- Dobson, A.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Unwin Hyman(정용화 옮김, 1993,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 Donham, D. 1990, *History, Power, Ideology: Central Issues in Marxism and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yzek, J. 1996, "Strategies of Ecological Democratization," in Lafferty, W. M. & Meadowcraft, J.(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Prospects*, Chestenham: Edward Elgar, pp.108-123.
- \_\_\_\_\_.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Univ. Press.
- Eckersley, R. 1992,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Toward an Ecocentric Approach*, London: UCL Press.
- Fox, W. 1984, "Deep Ecology: A New Philosophy of Our Time?," *The Ecologist*, Vol. 14, No. 5/6.
- \_\_\_\_\_. 1986, *Approaching Deep Ecology: A Response to Richard Sylvan's Critique of Deep Ecology*, Tasmania: University of Tasmania .
- Gorz, A., Vigderman, P. & Cloud, J.(trans.) 1980, *Ecology as Politics*, London: Pluto Press.
- Hajer, M.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Clarendon Press.
- \_\_\_\_\_.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as Cultural Politics," in Lash, S., Szerszynski, B. & Wynne, B.(eds.), *Risk, Environment and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168.
- Hayward, T. 1995, *Ecological Thought: An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Jackson, C. 1993, "Environmentalisms and Gender Interests in the Third world," *Development and Change*, 24(4), October, pp.649-677.
- Latour, B. 1998, "To Modernise or to Ecologize? That is the Question," in Braun, B. & Castree, N.(eds.), *Remaking Reality: Nature at the Milleniu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le, S. M. 1991, "Sustainabl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19(6), pp.607-621.
- Lipietz, A. & Slater, M.(trans.) 1992,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llor, M. 1992, "Eco-Feminism and Eco-Socialism: Dilemmas of Essen-

- tialism and Materialis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0, pp.43-62.
- \_\_\_\_\_. 1997, *Feminism & Ec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rchant, C. 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_\_\_\_\_. 1994, “William Cronon’s Nature’s Metropolis,” *Antipode*, Vol. 26, No. 2.
- \_\_\_\_\_. 1996, *Earthcare: Wom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Routledge.
- Mies, M. & Shiva, V. 1993, *Ecofeminism*, Melbourne: Spinifex Press.
- Mills, M. 1996, “Green Democracy: The Search for an Ethical Solution,” in Doherty, B. & de Geus, M.(eds.), *Democracy and Green Political Thought: Sustainability, Rights and Citizenshi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l, A. P. J.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Institutional Reflexivity: Environmental Reform in the Late Modern Age,” *Ecological Politics*, Vol. 5, No. 2, pp.302-323.
- Ophuls, W. 1977,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San Francisco: Freeman.
- Paehlke, R. 1988, “Democracy, Bureaucracy, and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 Ethics*, 10, pp.291-308.
- Paehlke, R. & Torgerson, D.(eds.) 1990, *Managing Leviathan: Environmental Politics and the Administrative State*, London: Belhaven Press.
- Peluso, N. L. 1993, “Coercing Conservation? The Politics of State Resource Control,”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2), pp.199-217.
- Plumwood, V. 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
- Redclift, M. 1984,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risis*, Methuen; 강현수·이상현·장윤희 역, 1993, 『발전과 환경위기』, 한울.
- \_\_\_\_\_. 1987, *Sustainable Development: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London: Methuen.
- Redclift, M. & Benton, T. 1994, *Social Theory and the Global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Rocheleau, D. 1995, “Gender and Biodiversity—A Feminist Political Ecology Perspective,” *IDS Bulletin-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26(1), pp.9-16.



- Sagoff, M. 1988, *The Economy of the Ear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ward, M. 1996, "Must Democrats be Environmentalists?," in Doherty, B. & de Geus, M.(eds.), *Democracy and Green Political Thought: Sustainability, Rights and Citizenshi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hiva, V. 1989,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N.J.: Zed Books.
- \_\_\_\_\_. V. 1991,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Third World Agriculture, Ecology and Politics*, N.J.: Zed Books.
- Stonich, S. 1993, "I am Destroying the Land!," *The Political Ecology of Poverty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Honduras*, Boulder, CO: Westview Press.
- Turner, M. 1993, "Overstocking the Range," *Economic Geography*, 69(4), pp.402-421.
- Walker, P. 1998, "Politics of Nature: An Overview of Political Ecology," *CNS* 9(1), pp.131-144.
- Warren, K.(ed.) 1997,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atts, M. 1998, "Nature as Artifice and Artifact," in Braun, B. & Castree, N.(eds.), *Remaking Reality: Nature at the Millenium*,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243-268.
- Watts, M. J. 1985, "Social Theor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Case of Sudano-Sahelian West Africa," in Gradus, Y.(ed.), *Desert Development: Man and Technology in Sparselands*, Dordrecht: D. Reidel Publishers.
- \_\_\_\_\_. 1987, "Drought, Environment and Food Security: Some Reflections on Peasants, Pastoralists and Commoditization in Dryland West Africa," in Glantz, M. H.(ed.), *Drought and Hunger in Africa: Denying Famine a Fu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Review of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by Piers Blaikie and Harold Brookfield, 1987," *CNS*, Issue 4, June.
- Watts, M. J. & McCarthy, J. 1997, "Nature as Artifice, Nature as Artefact: Development, Environment and Modernity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Lee, R. & Willis, J.(eds.), *Geography of Economies*, New York: Arnold, pp.71-86.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G. & Bryant, R. 1997, *Environmental Management: New Direc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UCL Press.
- Zimmerer, K. 1993, "Soil Erosion and Social (Dis)Courses in Cochabamba, Bolivia: Perceiving the Natur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Economic Geography*, 69(4), pp.312-327.

